

## 브르타뉴 여정

이건일 (68, 남가주)

몇년전에 다녀 왔던 브르타뉴 (Bretagne) 를 다시 한번 더 가보고 싶은 생각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다. 작년에 우연히 근처 친구들과 같이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년에는 어디로 여행을 가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기 나왔다. 내가 프랑스 서쪽끝에 있는 켈트 족 (Celtic) 들이 사는 브르타뉴에 가보면 어떨겠느냐는 말을 하고 원한다면 내가 한번 갔다 온 곳이니 안내겸 여행 준비를 해보겠다니 이구동성으로 찬성을 하여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튿날 내가 한 20 여년 이상 이용하는 AAA travel 의 메리 (Mary N.) 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리고 우리 일행은 10-12 명 정도가 될것이고, 그 쪽이 위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전에 가보았던 경험으로 보면 비가 자주 오고 바람도 많이 분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간은 여름으로, 가볼 곳으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금 산지인 게항드 (Guerande) 와 일행 중 한 명이 될 Mrs. 송의 의견을 반영 하여 브리타뉴와 노르망디 중간에 위치한 그 유명한 몽생미셸 (Mont-Saint-Michel) 를 반드시 포함 하기로 하였다. 거기에 나중에 그림 그리는 김군이 Gauguin 이 잠시 머물렀던 뽕따벤 (Pont-Aven) 에도 꼭 가보아야 된다가에 그곳도 여정에 넣기로 하였다.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 일행이 10 명으로 확정 되었다. 많은 이메일과 전화 통화 끝에 모든 여행 준비는 AAA travel 이 이용하는 Alexander & Roberts 에게 일임하기로 하여 우리가 꼭 가볼 곳과 내가 원하는 릴레 & 샤토 (Relais & Chateaux) chain 의 작은 부딕 호텔들로 숙소를 정하라고 요청 하였다. 이 회사는 New Hampshire 어디엔가 있는데 소규모 그룹투어가 전문인 모양이었다. 나는 원래 6 월 말로 기간을 정하려 하였으나 그 시기에 유럽 축구 대회가 프랑스 전국에서 있다가에 이것이 끝나는 7 월 중순으로 날짜를 잡았다. 빠리 테러 사건이 3 월엔가 있었던 터라 일말의 불안감은 있었으나 우리가 가 볼곳은 전부 궁벽한 시골이라 그리 큰 염려는 되지 않았다. 대충 여정이 잡히고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보니 비용이 만만치는 않았다. 우리가 여행할 기간이 일년중 제일 비싼 성수기라 호텔 비용, 비행기표 값이 최고 수준 인거다. 총 경비내역을 받아 의견들을 물어보니 다 찬성이다. 그래서 메리에게 작업 시작의 신호를 보냈다.

출발 한달전 쯤 자세한 일정이 들은 책자와 짐 가방에 부칠 가족으로 된 명찰들과 응급시 접촉할 전화 번호와 아주 기본적인 여행 안내 책자가 짙은 갈색 가방에 넣어져 보내 왔다. 우리 일행 세부부 6 명은 7 월 14 일 오후 3 시 30 분 비행기로 LAX 를 출발, 괴로운 11 시간여의 비행끝에 빠리 공항에 도착, 출입국 수속을 하고 짐 찾고 나니 한시간 이상 걸렸다. 출구에 나가 보니 최, 흥군 부부가 이미 도착하여 프랑스인 가이드인 드니스 (Denise G.)와 함께 우리를 반긴다. 이어 미니 버스로 몽빠흐나스(Montparnasse) 역으로 이동하여 낭뜨 (Nantes) 행 TGV 에 올랐다. 반쯤 자다 깨다 하다 보니 어느새 도착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전 여정에 이용할 20 인승 미니 버스에 올라 숙소가 있는 라 볼 (La Baule) 로 향하였다. 이곳은 1849 년에 낭뜨의 어느 부자가 이 별볼일이 없었던 해안에 소나무를 대량으로 심고 휴양지로 개발을 하여 지금은 고급 휴양지로 되었고 수많은 고급 호텔, 식당, 점포들이 자리 잡고 있고 9 km 의 모래사장을 자랑하는 해변 도시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침부터 굴로 배를 채우고 근처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천일염을 아직도 재래식 방식으로 흠바닥에 바닷물을 증발시켜 인력으로 굽어 모아 생산 하는 곳인, 게랑드 (Guerande) 염전을 보러 갔다. 가이드인 드니스가 소개시켜준 염전에서 홍보를 맡은 젊고 아리따운 소피 (Sophie) 가 우리에게 염전 소개를 해주었다. 바닷물을 증발시켜 막 소금 결정이 물위에 뜰 때 살짝 건져 내는 것이 온 세계의 셰프들이 선호하는 꽃소금 (Fleur de sel) 인데 일년에 약 300 톤 정도만 생산 되며 바닥에 들어 붙는 천일염은 약 10,000 톤 정도가 생산 된다고 한다. 이 고단한 작업이 싫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났고 지금은 그저 300 여명 만이 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게랑드 (Guerande) 시내로 향하였는데 가는 날이 장날 이라고 마침 장이 서 있었다. 나는 시골 장 구경 하는 것이 제일 재미있고 또 이것이 프랑스 시골을 여행하는 즐거움 중의 으뜸이다. 다시 버스로 이동하여 방문한 작은 마을, 라호쉬 베흐나흐 (La Roche-Bernard) 마을은 꽃으로 뒤 덮혀 있었다.



프랑스어로는 브르타뉴 (Bretagne), 영어로는 브리태니 (Brittany), 원주민 언어 브레통 (Breton) 어로는 브레이즈 (Breizh)라 불리우는 이 지역은 프랑스 북서쪽에 위치 한다. 면적은 약 34 만 km<sup>2</sup> (13,000 sq mi) 이며 인구는 약 4.5 백만이다. 현재 다음의 4 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Finistère (서), Côtes-d'Armor (북), Ille-et-Vilaine (북동), Morbihan (남), 주도시는 렌 (Renne)이다. 1956 년에 낭뜨 (Nantes) 가 있는 지역이 Loire-Atlantique 로 Pays de la Loire 지역에 편입 되었다. 6 개 Celtic nations 이루어진 Celtic League 에 속한다. 로마 시절에는 Armorica 라고 알려 졌으며, 한때 독립 왕국이었다가 공국 (Duchy) 으로 되었다가 1532 년에 마지막 공주 안느 (Anne of Brittany) 가 프랑스 왕들과 결혼 하는 바람에 프랑스 왕국에 속하게 되었다.

우리의 여행 경로는 지도 맨 밑의 라 볼 에서 시작, 게랑드, 라 호시 베흐나흐, 카흐낙, 모비흐비앙 灣, 로리앙, 오 디엔느, 하(Raz) 꽃, 뵘호스-기헵 근처에 있는 트레뵜흐당, 디낭, 디나흐, 생 말로, 몽-생-미셸(오르쪽 맨 윗쪽) 그리고 빠리.



Breton 말은 Celtic 어의 하나이고 Cornish 어와 Welsh 어와 가까운 관계이다. 5 세기에 영국을 침범한 앵글로-색슨 족을 피하여 이주한 브르타뉴인들과 같이 들어 왔다. 브르타뉴 왕국과 프랑스왕국이 병합하기 이전부터 브르타뉴 공국 (Duchy of Brittany) 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를 몰아내고 프랑스어가 되었었다. 이 당시 브르타뉴 말은 시골 사람들이나 사용하고 있었다. 1960 년 까지는 서부 브르타뉴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1970 년대에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였다. 현재는 60 세 이상 연령층에서나 쓰이고 있어 UNESCO 에서 "severely endangered" language 로 등재 하였다.

다음날 아침을 잘 얻어 먹고 짐을 싸고 나와 로끄마히아께 (Locmariaquer) 로 향하였다. 오래된 돌들을 구경 하러 가는 것이다. 점심 먹고 나서 까흐낙 (Carnac) 에 있는 선 돌무리를 보러갔다. 날씨가 너무 더워 구경 하기도 힘들었다. 더위에 지친 몸을 끌고 오늘 밤 숙소인 께흐비낙 (Kervignac) 에 있는 릴레 & 샤토 체인인 로끄게놀 성 (Chateau de Locquenole) 으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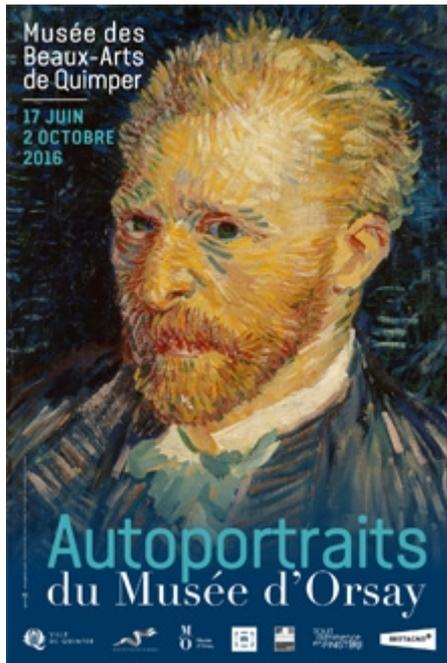


샤또 로크게놀이에서 잘 자고 일어나 아침 일찍 몇 십 에이커나 되는 숲길을 걸었다. 아침을 잘 얻어 먹고 나와 뵙따벤 (Pont-Aven)으로 향했다. 샤또 로크게놀이에서 잘 자고 일어나 아침 일찍 몇 십 에이커나 되는 숲길을 걸었다. 아침을 잘 얻어 먹고 나와 뵙따벤 (Pont-Aven)으로 향했다. Pont-Aven 은 작은 어촌 마을인데 뛰어난 주변 경관과 싼 주거 비용에 이끌린 미술가들이 하나 둘 모여 들게 되었고 에밀 베흐나흐 (Émile Bernard) 와 뿔 고갱 (Paul Gauguin) 이 정착 한후, 1888 년에 뿔 세뤼제 (Paul Sérusier)가 이들에 가담하므로서 "Pont-Aven School" (École de Pont-Aven) 을 형성 하게 되므로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전에는 이 마을 가운데를 흐르는 아벤 (Aven) 강을 이용한

몰레방아간이 많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단 한 개만이 남아있고 레스토랑이 되어있다. 아직도 많은 예술가들과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고 마을에는 수많은 갤러리들이 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캥페흐 (Quimper)라는 작은 도시. 마침 운 좋게도 '가는 날이 장날' 이라고 Musee d'Orsay 에서 빌려온 자화상 (self-portrait) 전시가 열리고 있어서 들어가 보았다.

### 고흐 자화상



오디엔느 (Audierne) 에서 우리가 묵었던 르 고와이앵 (Le Goyen) 호텔



호텔이름은 그 앞을 흐르는 강이름에서 따왔다. 만조시에는 바닷물이 역류하여 강수위가 높아 진다. 전에는 번창하던 어촌이었으나 정어리 (sardine) 어획량이 줄어 지금은 한적하고 별 볼일 없는 시골 마을이 되었다.

아침 일찍 문을 열은 시장 (Les Halles) 에서본 생선 가게. 홍어 날개 (Aile de Raie = wing of ray)



아침 먹고 출발하여 도착한 곳, 프랑스 본토 맨 서쪽 끝에 있는 하곶 (뽀앵뜨 뒤 하, Pointe du Raz= point of razor)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지형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바다를 배경으로 흐드러지게 핀 헤더 (heather) 꽃밭 바위들이 점,점,점 ..... 늘어서 있다.



다음으로 찾아간 도시, 듀아흐느네 (Douarnenez). 또다시 만난 '가는 날이 장날' 이라 마침 이 곳에서 축제 (Temps fete) 가 열리고 있었다. 수많은 옛날 배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 들어 서로의 모양을 뽐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Le Goyen 호텔에서 나와 첫 번째 들린 곳인 로끄호낭 (Locronan) 마을, 다시한번 '가는 날이 장날' 이라 정말로 장이 서 있었다. 노천 시장 책 파는 곳에서 고서를 샀다. 김군은 책 등표지가 가죽으로 된 기도서 두권, 나는 연안 낚시질 (1939 년 출판 된 영어판!) 책 과 1883 년 출간한 서한집, 책 페이지를 힘주어 넘기면 종이가 부스러질 정도로 낡았다.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으나 안내인 드니스의 성화에 할 수 없이 버스에 올라 향한 곳은 이 브르타뉴와 노르망디의 특산품인 사과주 씨드르 (Cidre) 농장. 농장 주인이 사과주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좀 시금 텃텃 하고 구린내가 나서 내 취향에는 잘 맞지 않는다.



배고픈 김에 먹는 점심, 꿀맛이다. 이 지역의 특징적 요리인 crepe (크레프), 모밀과 밀가루 섞은 것으로 만드는 일종의 전병인데, 안에다가 햄, 고기, 달걀, 치즈등을 넣으면 주 요리이고 과일이나 잼등을 넣으면 디저트가 되는 아주 편리한 음식이다.

점심 먹고 떠나 들린 곳은 기밀리오 (Guimiliau) 마을. Breton 어로는 Gwimilio (브레통 말로 밀리오=Milio 의 마을 =gwic), 6 또는 9 세기에 죽은 브레통 왕자를 기려 지은 이름이다. 우리는 이 마을에 있는 교회의 Parish close 를 보러 간 것이다. 이것은 보통 육중한 대문을 가진 담장으로 둘러싸인 교회 마당을 말한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신성한 건축물은 기독교 전파 이전 부터 내려오는 브르타뉴의 전통적 양식이다.

교회 Parish close



마을 중심부



과자가게, 프랑스의 과자가게 (boulangerie)에는 사람을 유혹 하는 힘이 있다. 특히 과자들 display 가 아주 탁월하다. 무어라도 사고 싶게 만든다.



다음으로 향한 숙소인 Relais & Chateaux chain, Manoir de Lan Kerellec, Trebeurden (뜨레비흐당 의 란 깨흐엘렉 莊院) 풀이 하자면 Lan=place, Ker=house, so Ellec 의 집이란 뜻. 내 방은 바닷가에 위치 하여 바다가 손에 잡힐듯 가까이 있었다. 이번 여행 중 제일 좋은 숙소인듯 싶다. 나중에 다시 한번 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튿날 아침 숙소에서 나와 들린 디낭 (Dinan) 시에는 이번에도 어김 없이 시장이 서 있었다. 이 도시는 흥군이 본 Rick Steve 의 Travel to Europe 프로그램에서 딱 한군데만 가 볼수 있다면 반드시 가 보아야 하는 도시로 추천 하더라. 그래서 다른 곳을 생략 하고 들리게 된 것이다.

#### 디낭 중심부



디낭 (Dinan)시는 성벽으로 둘러 싸인 브르타뉴의 도시이다. 시내 중심부는 언덕위에 자리 잡고 있고 급격한 경사길을 내려오면 랑스 (Rance) 강이 언덕 아래로 흐른다. 이 강은 북쪽으로 흘러 대서양으로 들어간다. 디낭시는 바다로 부터 배가 들어 오는 항구 도시이다. 우리가 점심 먹은 곳은 언덕 아래 내려오자 마자 강가에 위치한 Creperie 였었다.

디낭 (Dinan)시를 뒤로 하고 다음에 들린 곳은 디나르 (Dinard). 이곳은 기다란 모래해변과 온화한 날씨 때문에 인기있는 휴양지로 저명인사들이 자주 찾거나 거주 하는 곳이었다. 초기에는 만 건너편에 있는 생 말로 (Saint-Malo) 의 선주들이 저택을 짓고 이주하였다. 19 세기때에는 미국, 영국의 귀족들에게 인기있는 하계 휴양지가 되었고, 그 당시 지은 대 저택들과 프랑스 "Belle Époque" 때 건축된 'Le Grand Hotel' 이 아직도 바닷가에 서있다. Dinard 라는 이름은 "Din" (요새, "hill"/"fort") 과 "Arz/Art" (강화된, "fortified") 에서 유래하며 1930 년대 이후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Côte d'Azur (프른 해안) 로 옮겨가는 바람에 쇠퇴기에 접어 들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매력적인 해안 도시 임에는 틀림이 없다. 어린이들 보트 연습시키기 위해 새끼보트를 한 줄에 매달고 달린다. 마치 어미 오리 쫓아 가는 새끼 오리떼 같다.



생 말로 성벽 과 성문



이 도시는 이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많은 손상을 받았으나 전후에 말짱히 복구 되었다.



생 말로를 떠나 한참 달리니 브흐따뉴를 벗어나 이젠 노르망디 이다. 몽 생 미셸 근처 바 꾸틸 (Bas Courtils) 마을에 있는 숙소인 마느와 드 라 호쉬 또한 (Manoir de la Roche Torin) 에 도착했다. 아주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있는 촌 여관이다. 옛날 어느 시골 부자 집 (Manoir=장원=mansion) 을 호텔로 쓰고 있는가 보았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준 방이 너무 비좁아 여행 백을 펼쳐 놓으니 움직일 자리도 없고 화장실 들어 가려면 뒷걸음질 쳐야 하고 화장실 문을 닫으니 문이 내 이마를 친다. 여태 까지 묵은 중 제일 쳐지는 호텔이다. 몽 생 미셸 경치 하나 보고 참기로 했다. 그러나 나중에 집에 돌아와 여행사에 항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몽 생 미셸을 보러 갔다. 나는 이번으로 두번째 방문이다. Le Mont-Saint-Michel (르 몽 생 미셸; 영어로는=Saint Michael's Mount) 는 Normandy 에 있는 섬이다. 아브랑쉬 (Avranches) 근처 퀘스농 (Cuesnon) 江 입구에서 약 1 km 떨어져 있으며 면적이 약 100 hectares (247 acres) 정도이다. 2009 년 현재로 상주 인구는 44 명. 이 섬은 옛날부터 전략적 가치가 높았고 8 세기 이후로는 동명의 수도원이 되었다. 건축 형식이 중세 봉건제도를 그대로 나타낸다. 즉 맨위에 하느님 즉 성당, 수도원, 그 밑으로 대회당, 상점 과 주택, 맨밑에는 성벽 밖에 어부와 농민의 집들이 있었다. 본토에서 600 m 밖에 떨어져 있지않은 독특한 위치 때문에 썰물때 순례자들이 성당에 올수 있었고, 밀물때에는 쳐들어 오는 적들이 고립 되거나 익사하는 이점이 있었다. 100 년 전쟁 당시에도 점령 당하지 않았고 1433 년에는 엘리자베스 1 세가 보낸 영국군의 공격을 막아 내기도 하였다. 이 지리적 이점을 간파한 루이 11 세가 이 섬을 감옥으로 만들었다. 프랑스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장소로 연간 3 백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고, UNESCO World Heritage 장소로 지정 되었고 섬의 건축물 60 채 이상이 프랑스 정부가 지정하는 사적 (monuments historiques) 으로 등재 되어 있다.



원래 이곳은 만조시에는 물이 들어와 고립된 섬이 되는데 이제는 다리를 놓아 들어 오기 편해졌다. 중세에는 필그림들이 바다를 건너 교회 지을 돌들을 메고 들어오다 갯벌에 빠져 많은 순교자를 냈다고 한다.



가까운 다른 마을인 아브랑쉬 (Avranches) 에 있는 식물원에 들렸다. 이 공원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멀리 몽 생 미셸이 잘 보인다.



우리는 저녁으로 볶은 밥에 고추장에 달걀 후라이에 상추로 잘 먹고 심술장이 드니스의 안내로 썰물이 들어 오는 몽 생 미셸의 저녁 바다를 보러 가시덤불 헤치며 양 똥이 즐비하게 깔린 바닷가로 나갔다. 멀리 몽 생 미셸이 보인다. 아스라이 보이는 몽 생 미셸. 언제 또 다시와서 볼 수 있을까? 바다밑으로 떨어지기 직전의 태양. 우리 인생도 이와 같구나.



Renne TGV 역으로 가는 길에 들린 돌- 드- 브흐따뉴 (Dol-de-Bretagne) 마을 중앙 광장의 노미노에 (Nominoë; 서기 851 년 사망; 846 년 부터 부흐따뉴의 공작이었다.) 석상. 그는 부흐따뉴 애국자였으며 부흐따뉴의 國父 (Tad ar Vro) 로 불리운다.



마침 또 "가는 날이 장날" 이어서 큰 장이 서 있었다. 야채 상인의 좌대에 진열된 아티초크. 나와 우리 마나님은 이 아티초크만 보면 괜히 좋아 한다. 실제로 사다가 요리 해보면 항상 잘못하여 성공해 보지 못했다. 언젠가 스페인말라가 타파스 바에서 요리하는 것을 보았는데 불에 구워 내 왔었다.



그 옆에 빠예야 만드는 양반이 우리를 보더니 큰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아침 먹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기차를 타야 되니 못 먹어 보고 가는 것이 아쉽다. 헌데 나중에 보니 사 가지고 와서 기차속에서 먹을 걸 잘못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생각 해보아도 아쉽기 짝이 없다. 참 맛있어 보였는데.....



TGV 로 두시간 쯤 걸려 몽빠르나스 역에 도착, 마중나온 리무진 운전기사들과 만나 두 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빠리에서 이틀간 우리 숙소가 될 힐레 크리스틴 (Relais Chrisitine) 에 방을 정하고 짐 정리 하고 샤워하고 다시 모여 호텔 현관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만찬에 간다고 모두가 정장을 하려고 노력했다. 이어 우리를 호텔 까지 데릴러 온 가이드 세실 (Cecile) 의 안내로 50 인승 버스에 달랑 10 명이 타고 오늘 저녁 만찬과 쇼를 보러 두시간 거리에 있는 샤프 드 보- 르- 비공프 (Chateaux de Vaux-le-Vicomte) 로 향했다. 이 샤프는 빠리에서 남동쪽으로 약 55km 거리에 있는 맹씨 (Maincy) 에 있는데 1658-1661 사이에 니콜라스 후께 (Nicolas Fouquet) 에 의해 건축된 아주 장식이 화려하고 복잡하기 이를 때 없는 바로크 (Baroque=폴투갈어로 "barroco" 혹은 스페인어로 "barrueco" 에서 왔는데 이 말은 거칠거나 완전치 못한 진주 라는 뜻이다.) 양식의 성이다. 후께는 벨르 일 후작 (Marquis de Bell Ile), 멜링 과 보의 자작 (Viscount of Melun and Vaux)이 라는 작위와 함께 루이 14 세 (태양왕=Sun King=le Roi Soleil) 의 재무장관 격의 직책에 있었고 이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어느 나라 어느 왕조나 어느 정권에도 탐관 오리는 다 있게 마련.) 그 돈으로 그는 당대에 제일 유명한 건축가, 정원설계사, 화가들을 동원하고 성 건축 부지로 마을 세 곳을 없애고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 18000 명을 고용 하여 성을 운영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개최한 파티에 참석한 왕은 후께의 성이 너무 호와로운데 놀라고 격분하여 후께를 그 직위에서 쫓아내고 체포하여 종신형에 처하였는데 후께는 18 년후에 감옥에서 죽었다. 루이 14 세는 여기서 몰수한 미술품등을 가지고 후께가 썼던 건축가, 정원설계사, 화가 등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유명한 궁전인 베르사이유(Versailles) 궁을 건축하게 하였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너무 자기 분수를 벗어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샤또 입구를 뒤로 하고 그룹 사진



다음날 일찍 가이드겸 운전사인 구스타보 (Gustavo)가 우리를 데리러 왔다. 르와흐 벨리 (Loire Valley)의 샤또들을 보러 가는 것이다. 한 세시간 달리니 앙브와즈 (Amboise) 에 도착한다. 지금은 조그만 시골 마을 같지만 한때는 프랑스 왕실이 있던 곳이다. 이 곳에 간 이유는 레오날도 다 빈치 (Leonardo da Vinci) 가 마지막 3 년 (1516-1519)을 보냈던 끌로 루세 (The Château du Clos Lucé or simply Clos Lucé)를 보기 위함 이었다. 이 조그만 샤또는 왕이 살던 Royal Château d'Amboise 에서 500 m 떨어져 있는데 지하도로 연결 되어 있다고 한다. 1516 년 프랑스 왕 프랑시스 1 세 ( King Francis I )가 다 빈치를 초대 하여 끌로 루세를 주어 살게 하였다. 이때 다빈치는 Mona Lisa, Sainte Anne, and Saint Jean Baptiste 등 세개의 명화를 들고 왔으며 이때부터 모나리자 가 프랑스 소유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방탄 유리에 싸인 그 유명한 그림을 수많은 사람들 어깨 너머로 겨우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끌로 루세는 Leonardo da Vinci museum 으로 되었고 그의 수많은 발명품 모델과 모나리자 모사화를 볼수 있다.

## 다 빈치의 책상



플로 루세를 잘 구경하고 샤토 쉬농소 (Château de Chenonceau)로 향했다. 이 샤토 쉬농소 (Château de Chenonceau or Chenonceaux)는 세흐 (Cher) 강가에 있으며 작은 마을인 쉬농소 (Chenonceaux)가 가까이 있다. Loire Valley 에 있는 수많은 샤토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곳이며 년중 수 많은 관광객이 몰려 오는 곳이기도 하다. 이 샤토는 1514-1522 에 건축 되었고 원래 있던 물방앗간위에 강물 위로 성이 돌출 되게 지어 졌다. 건물은 후기 고딕 (late Gothic) 과 초기 르네상스 (early Renaissance) 양식으로 지어 졌다. 성과 정원은 일반에게 공개 되어있다. 이곳은 베르샤이유 궁전을 제외 하면 프랑스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다. 1840 년 에 역사적 유적 ( Monument historique) 으로 지정 되었고 2007 년에는 80 만명이 다녀 갔다고 한다. 1535 년 프랑시스 1 세가 샤토를 볼러 (Bohler)가문에게서 빼앗았다. 1547 년 프랑시스 1 세가 죽자 그 아들인 앙리 2 세 (Henry II) 가 샤토를 자기 정부 (mistress) 인 디안느 드 뽀와띠에 (Diane de Poitiers) 에게 주었다. Diane 는 샤토에 집착하게 되었고 성을 개축하고 많은 꽃과 나무를 심었고 강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뚝도 건설하였다. 샤토는 1555 년 까지 왕실 소유로 남아 있었다. 그후 1559 년 앙리 2 세가 죽자 개성이 뚜렷한 그의 미망인이며 섭정인 까테린 드 메디치 (Catherine de' Medici) 가 샤토를 Diane 에게서 빼앗았다. 그리고 샤토 쉬농소를 자기의 궁궐로 삼고 살면서 새로운 정원을 잇대서 만들었다. 1589 년 Catherine 이 죽자 그녀의 아들인 앙리 3 세 (Henry III) 의 부인이며 며느리인 루이즈 드 로레인-보데몽 (Louise de Lorraine-Vaudémont) 에게로 소유권이 넘어 갔다. 1589 년 Henry III 가 암살 당하자 루이즈는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 상복을 입고 해골과 뼈로 장식된 검정색 벽걸이 (black tapestries stitched with skulls and crossbones)로 장식된 샤토를 하염없이 방황하였다고 한다.

Cher 강 에 걸쳐 있는 샤토 쉬농소



정원



샤또 쉬농소 오랑제리(Orangerie)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였다. 이 곳은 한 15년 전쯤에 아들과 같이 와서 점심을 먹었고 다시 와 보리라고 다짐 할 정도로 운치있고 음식맛이 좋은 식당 이었다. Orangerie 또는 orangerie 는 17-19 세기에 유행 하였던 일종의 온실 아니면 묘목원 정도에 해당 하는데 대 저택이나 샤또에 부속된 방이나 건물을 일컫는다. 이는 겨울에 오렌지 나무나 다른 과일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대부분의 샤또에는 대개 오랑제리가 딸려 있고 지금은 대부분 레스토랑으로 사용 되고 있다. 빠리 아니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아침은 일찍 일어나 세느 강변을 걷고 노뜨르 담 사원도 걸음으로만 구경 하였다.

빠리 아니 프랑스 전체에서 하나 밖에 없다는 영어 책을 파는 셰익스피어 책방 겸 카페



이로서 11 일에 걸친 우리 친구 10 명의 Bretagne, Mont-Saint-Michel, Chateau de Vaux-le-Vicomte, Loire Valley Chateau Chenonceau 여정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언제 또 이런 여행을 다시 해 볼 것이냐? 좀 고급스러운 Journey of Nectar(신의 음료) 와 Ambrosia (신의 음식) 이었지 아마?

사족;

프랑스어의 R 자 발음은 우리가 흉내 내기 참 힘들다. 이것은 한글의 "ㄹ" 이 아니고 거센 소리의 "ㅎ" 에 더 가까운데 "ㅋ" 와 "ㅎ" 중간쯤 된다고 생각 한다. 그래서 이 여행기에서는 "ㅎ"으로 표기 했다.





